



산란계자조금 활성화 방안

성숙된 화합으로 미래를 향해

- 자조금 거출 협조를 바라며 -



오 세 을 경기도산란지부연합회 회장

2006년의 불황은 2007년까지 이어져 양계인들은 지금 봄을 알리는 경칩이 지났건만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 산란업계에 시련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 우리의 산란업계는 한치 앞도 안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닭 숫자가 과잉입추 현상을 보이고 노계는 도태가 지연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닭이 5,700만수를 넘어서 연말에는 6,000만수까지 예상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낡고 있다. 사료 값은 국제 곡물가 상승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상승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미국과의 FTA협상과 2006년부터 불어닥친 AI는 소비불안 등으로 시장을 얼

어붙게 만들며 생산비 이하를 이어온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다. 지금 우리 산란업계의 현실은 직시할 수 없는 안개낀 고속도로를 달리는 기분이다.

불황을 극복하는 자세를 보일 때

무언가 산란인들이나 부화인들이 힘을 합쳐 이 양계산업의 불황을 극복하는 자세를 보일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먼저 해결할 문제는 자조금 거출, 병아리 생산감축, 종계 쿼터제 재설정 등을 통해 산란인들도 생산 감축내지 수조절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시행해야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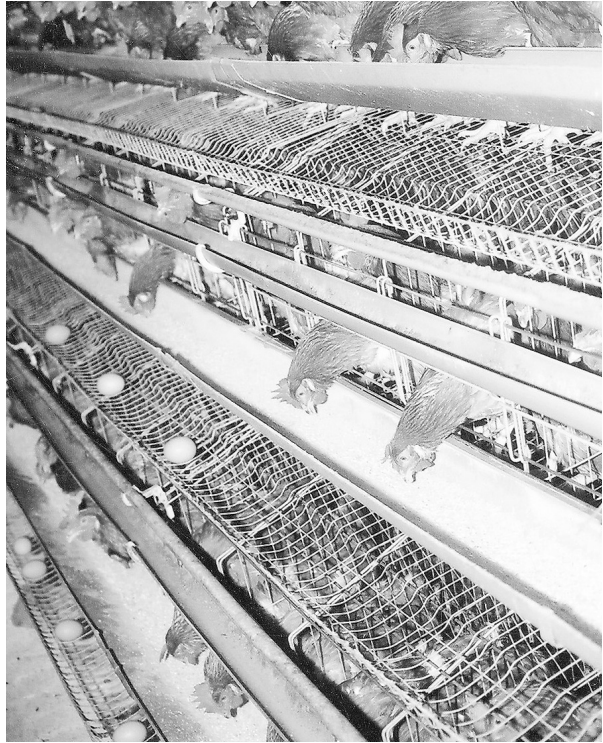


먼저 자조금 문제인데 수납기관을 사료 업체에 적용 해보려고 몇 년째 노력하였으나 메이저급의 큰 사료공장의 비협조로 무산이 되어 협회에서 국회법 등으로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무산되고 채란인들의 결의로 부화장측과 협의하여 병아리에서 자조금 거출을 하려는 상황이었다.

처음에는 부화장과 협의결과 협력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못하겠다고 하니 우리 양계인들은 허탈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 양계인들이 내겠다는데 부화장측에서 협조하는 의지를 보이다가 반대를 표명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채란계와 부화장이 그동안 서로 쿼터제도 하고 병아리 값이 폭등을 해도 서로 협력하여 부화장이나 채란인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협조를 잘 해왔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부화장에서 전과같이 협조를 안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앞으로 양 업계가 윈윈 할 때 양계산업이 더욱더 발전하리라 본다.

임의자조금 거출 협력을 바라며

서로 손을 맞잡고 상생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되며 자조금의 수당 액수도 하향 조절하고 부화장에서 잘못알고 있는 의무자조금이 아닌 임의 자조금을 위하여 협력하여 주기 바라며 자조금 거출방법은 채란인들과 많은 의논이 있으면 좋겠다. 자조금은 우선 부화장에서 협조를 하고 우리 채란인들도 자조금에 많이 동참하여야 한다.



싱싱한 계란을 소비자에게 소비촉진과 더불어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야 할 때이며 지금이야말로 자조금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바로 우리 채란업계와 부화업계가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양계업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좋지 않은 계란이 시장을 오갈 것이며 그것은 바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여 계란소비 위축을 불러와서 계란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다. 이는 곧 부화업이나 양계업이 공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성숙된 화합과 미래(!)의 양계업을 위하여 자조금 만이라도 병아리에서 거출하는 방법으로 하였으면 좋겠다. 성의있는 결과를 양업계가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 **양계**